

著作權法 改正 立法 예고

10~15名の 著作權 仲裁委員會도 設置키로

政府는 지난 6日 著作權法改正案을 관보를 통해 立法예고했다. 이 改正案은 외국인의 著作物은 우리나라가 加入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라 保護하되 국내에 상시적 住所를 가졌거나 맨처음 國內에서 發行된 外國人의 著作物은 國內人과 同一하게 保護하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著作物을 충분히 保護하지 않은 國家의 著作物에 대해서는 相互主義原則에 立脚, 國內 保護를 그에 相應하게 制限토록 했다.

또 現行法에 의해 保護되지 않은 外國著作物에 대해서는 不遑及原則을 채택했다.

改正案은 現行法의 著作權非侵害行爲인 기발행 음반, 녹음물의 放送 또는 公演을 著作權 保護對象으로 修正했으며 著作財產權의 保護期間을 著作者의 死後 30年에서 50年으로 延長했다.

또 著作 인접권을 新設 ▲실연자에게는 녹음·녹화권 및 방송권을 ▲음반제작자에게는 복제·배포권을 ▲방송사업자

에게는 복제 또는 동시 증계방송권을 부여하는 등 일정한 範圍內에서 權利를 인정 했으며 著作인접권의 保護期間을 20年間으로 規定했다.

改正案은 이와함께 著作權紛爭의 신속한 仲裁를 위해 15~20名으로 著作權仲裁委員會를 設置, 著作權紛爭 및 각종보상에 관한 審議를 담당토록 했다.

韓國技術開發(株)

新技術展示場 개장

韓國技術開發(株)은 전경련 회관에서 鄭周永 전경련회장, 具滋暻 럭키금성그룹회장, 柳琦諄중소기업중앙회장, 盧仁煥 전경련부회장, 羅雄培·趙庚穆의원, 權原基 과기처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韓國技術開發(株) 지원, 신기술 개발제품 전시장 개장식을 가졌다.

신기술 개발제품의 전시를 통한 對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展示場에는 機械金屬·電氣電子·化學등 22개분야의 中小企業開發新製品이 전시되는 개별전시대와, 中小企業 및 大企業이 개발한 2백50여 품목의 新製品이 展示된 공동 전시대가 마련돼 있다.

物質特許 對策 強化

新製品開發企業化·稅制지원등 推進

精密化學工業振興會(회장 許慎九)는 올해 物質特許와 관련된 각종 대책을 활발히 추진해 가나기로 했다. 精密化學工業振興會에 따르면 올해 精密化學工業의 분야별 생산품목 생산량 생산액 수출액 가득률등을 조사하여 이조사를 바탕으로 新製品開發의 기업화사업을 포함하여 각종보호대책을 政府關係部處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벤처캐피틀회사인 韓國

技術開發株式會社나 韓國 기술금융등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 同진흥회가 추천한 有望中小企業에 대해 무담보 융자등 금융지원을 적극 앞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新物質創出研究를 위해 精密化學分野의 政府研究投資를 확대해 나가도록 건의하는 한편 각종 稅制·금융지원도 개선해 나가도록 政府當局에 건의할 계획이다.

本會 具 滋暻 會長 高大서 名譽 經濟學博士 學位 받아

本會 會長인 具 滋暻 키키금 성그룹회장은 지난 2月 25日 高麗大졸업식에서 명예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날 졸업식에서 具회장은 지난 35年間の 企業活動을 통해 化學 電子 電機 通信産業 등을 開拓, 이를 이끌어 옴으로써 수입대체와 함께 수출증대를 뒷받침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학위를 받았다.

이 학위수여의 공적서는 또 그가 蓮庵文化財團을 설립한뒤 文化事業을 활발하게 펼쳐 企業人으로서의 사회적 責任을 다했고 蓮庵學園을 통해 교육과 농촌 근대화사업에도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工業所有權 開放대응」懇談會 車 특허청장 技術開發·出願活性化 당부

中小企業경영자협의회 (회장 崔圭巡)는 지난 2月 25日 全經聯회관에서 車秀明특허청장을 초청, 「工業所有權開放에 대한 대응전략과 중소기업의 技術開發」이라는 주제로 懇談會를 가졌다.

車청장은 懇談會에서 『特許行政도 중소기업의 技術開發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우수한 審査·審判官을 많이 늘려나가겠다』고 말하고 『중소기업도 特許出願을 보다 활발히 전개해서 物質特許導入등 特許開放化 추세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車청장은 物質特許制度의 導入에 대비해서 特許法을 改正,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으로 합동지원대책방안을 마련, 物質特許民間協議會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제실시권 운영기준을 보완, 외국인이 特許權 설정후 正當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석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特許情報를 보다 간편히 서어비스해주는 체제를 갖추어 줄 것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特許업무 개발등을 요청했다.

서울大 2學期부터 無體財產權 講義 개강

서울大 法科大學은 우리나라 大學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學期부터 無體財產權을 正規教科過程에 包含, 開設할 豫定이다.

外國에서는 無體財產權의 重要性을 認識, 이미 오래전부터 大學에서 講義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一部 大學院過程에서만 講義되어 왔다. 大學過程에서 講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大韓辨理士會會長에 田峻恒辨理士 選任

大韓辨理士會는 지난 2月 22日(土) 상오 10時 三井호텔에서 任石宰 會長을 비롯한 會員 1백48명이 參席한 가운데 第25回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第23代 會長에 田峻恒 辨理士(本會 비상근 副會長)를 選任했다.

또 副會長에는 鄭禹薰, 李周基, 朴天培 辨理士를 각각 選任했다. <○>